영월쓰레기매립장건설에따른
건 의 문
(상수원취수장오염관련)

제 천 시 의 회

건 의 문

대망의 2000년대를 맞이하여 미래로 웅비하는 국가초석을 다지는 국정의 다망하심에도 날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아직도 일천한 년륜과 성숙되지 않은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인간과 환경의 문제는 분리되어 말할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자, 미래의 가장 보배로운 가치자산이요, 영원히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임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당면한 현안으로써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백출하는 묘안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우리 충북 제천시에서는 최근 인접한 강원도 영월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월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한편,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천시 15만 시민에게 공급하는 양질의 취수원 상류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월군 현지 주민과 각종 단체의 거센 반발과 제천시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우리 제천시의회는 이에 따른 입장을 밝히는 한편 대책을 건의 드리오니 기필코 관철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 황

가. 영월 쓰레기매립장 사업개요

○ 위　　치 : 영월군 북면 덕상1리 거리실 419번지 일원

※ 제천시상수도취수원에서 유하거리 10km상류에 위치

○ 면　　적 : 60,000㎡ (매립장 : 40,000㎡)

○ 매립용량 : 600,000㎥ (약 30년 사용가능)

○ 사 업 비 : 135억원

○ 사업기간 : '99 ~ 2000. 12월

○ 부대시설 : 침출수처리시설(증발건조식), 소각시설(일 10M/T),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일 5M/T)

○ 1일 쓰레기 발생량 : 32M/T(가연10M/T, 불연22M/T)

나. 사업추진 경과

- ○ '96. 3. 20 ~ 5. 20 : 후보지 조사 및 추천(10개소)
- ○ '96. 10. ~ '97. 2. : 후보지 조사 용역(4개소)
- ○ '97. 7. ~ : 1차 후보지 선정(영월읍 팔괴리)
- ○ '98. 3. 28. : 주민반대로 의회에서 재선정 결정
- ○ '99. 8. 13 : 의회의견수렴후 군정조정위에서 변경결정 (북면 덕상1리)
- ○ '99. 8 ~ 현재 : 현지 실사 및 설계작업

다. 현지주민의 반대활동

- ○ '99. 11. 8. : 쓰레기장 설치예정지 하류인 서강을 끼고있는 서면주민 400여명의 반대 농성
- ○ '99. 12. 12부터 현재 : 현지 주민 20명이 쓰레기장 설치예정지 입구를 차단 순번제로 감시활동전개
- ○ 언론매체 동원 반대 홍보활동 및 중앙 및 강원도내 각 환경운동연합의 반대성명 및 기자회견 등.
- ○ 인터넷 게시 및 각종 전단 배포, 서강살리기 사진전시회
- ○ 2000. 5월에는 공사설계 방문단과의 몸싸움으로 주민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사태 악화 일로

라. 현지 주민들의 반대의견

o 매립장환경성 영향조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 4개의 후보지 가운데 영월읍 팔괴리가 위험도가 가장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o 매립지 입지 타당성조사에 의한 후보지별 평가결과

- 환경성조사 용역결과는 영월읍 팔괴리가 타당성이 높았음에도
- 영월군 자체 분석결과는 북면 덕상1리가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따라서 전문기관의 분석결과와 상이

o 침출수처리공법상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 본 쓰레기매립장에 사용할 증발건조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은 공법이며, 연료비가 많이 소요되어 이용되는 사례는 없음.

o 상수원취수장이 3개소가 있어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 쓰레기매립장 하류에 유하거리 10km지점에 제천시상수원 취수장을 비롯, 13km지점에 쌍용취수장, 또한 18km지점에 남면 취수장이 위치하고 있음.

o 서강의 생태계 파괴 및 주민의 생활환경 위협이 크다.

- 서강은 유속이 느린 1급수로서 천연기념물인 수달, 비오리,

어름치등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인 동시에 주민들이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음.

o **재해 피해 우려**

- 영월지역은 지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으로 쓰레기매립장의 적정관리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

2. 제천시에 미치는 영향

가. 상수원 취수장 오염가중

- 쓰레기매립장 하류 유하거리 10km지점에 위치한 장곡취수장(제천시 송학면 장곡리)은 15만 제천시민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쓰레기 침출수 유입은 물론 소각잔재물로 인한 서강의 오염에 수반하여 취수원의 오염이 가중될 것임.

  이는 결국 제천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한편 제천시의 발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사료됨.

나. 제천시,단양군 지역 하천의 생태계 파괴 및 수자원 오염

- 건설예정인 쓰레기매립장은 한강수계 상류에 위치한 관계로 서강을 거쳐 제천시 및 단양군의 수계로 이어지면서

충주호에까지 영향을 끼쳐 주변의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될 것임.

다. 관광개발을 저해하는 한편 관광객의 감소요인으로 작용

- 제천시를 비롯 단양군지역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문화유적의 보고로써 충주댐 담수와 함께 대단위 관광지의 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차제에 수질오염은 관광개발을 저해하고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게 할 것임.

3. 제천시의회의 대응방안 및 건의

쓰레기매립장 설치 주체인 영월군 내부에서조차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천시로서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쓰레기매립장 설치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각 직능단체와 시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 의회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에 예의 귀를 기울이면서 통일된 행보를 갖고자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납득할만한 결과에 도달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건 의 사 항 〉

① 영월쓰레기매립장 위치를 변경해 주십시오.

②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장곡취수장 상류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③ 영월 동강문제와 더불어 서강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2000. 9.

제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